# "1년에 36만명 찾아오는 스타마을 됐어요"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충남 청양 칠갑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2004년부터 실시해온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권역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 5년 동안 40~7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정부는 기초생활권(163개 시·군) 발전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 36개 권역에서 시작해 2010년 현재 301개 권역을 선정했다.

**최광석** 칠갑산권역위원회 위원장

### 주민들이 직접 개발계획 세워

충남 청양 칠갑산권역은 2004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처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시작할 땐 참 막막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향식 개발사업으로 주민들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전까진 하향식 사업이라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지원해주는 거였죠. 그러니 농민들이 언제 이런 계획을 세워봤겠어요. 담당 공무원까지 참석해 매일매일 회의를 해도 도통 결과가 나와야죠." 최광석 칠갑산권역위원회 위원장(51세)은 그 당시를 회상하면 지금도 답답한 마음이 든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대상 마을과 지자체가 함께 계획을 수립해 공모를 하면, 이를 농림수산식품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권역으로 선정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들의 현지 확인 조사 등 매우 엄정한 심사가 이뤄진다. 공모에 몇차례씩 떨어지는 권역도 많다.

칠갑산권역은 청양군 정산면의 마치리·용두리·서정리·천장리·역촌리 5개 마을로 구성돼 있다.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했다. "모두 평범한 농촌마을입니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개발이 많이 된 지역도 아니라 살림이 많이 어려웠죠. 이런 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민의 뜻이 모였으니 사업추진이 쉬웠겠다는 기자의 말에 최 위원장은 손사래를 쳤다.

"우리 권역은 다섯 마을, 620세대, 1,80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청양군의 고령화 비율이 28%니까 엄청 높죠. 이 분들을 모시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도장까지 찍고 합의한 사항도 하룻밤 지나고 나서 '우리 아들이 하지 마래'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시골 분들이죠. 권역위원장을 해보니까 부처님 마음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칠갑산권역은 2005년 사업에 착수해 지난해 사업을 완료했다. 중간엔 위기도 있었다. 2006년 중간평가 당시 사업진행이 부진해 패널티를 받아 사업비가 중단된 것이다. 하지만 중간평가 이후 권역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 사업에 매진한 결과, 2009년 사업을 완료한 36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 종합평가에서 구례군 방광권역과 함께 1위를 차지했다.

칠갑산권역은 현재 장류가공시설, 구기자체험관, 도농교류센터, 장승공원, 전통문화체험관, 웰빙체험농원 등을 갖추고 활발히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도농교류센터는 칠갑산 입구에 위치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세미나실·숙박시설·축구장·야외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시설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수원이 없는 중소기업 및 지역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2008년부터 시작한

칠갑산얼음축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해에만 15만여명이 다녀갔다. 이제 칠갑산권역은 연 36만명이 찾는 스타마을이다. 사업의 성공비결을 물었다.

"첫 번째 비결은 교육입니다. 저를 포함한 운영위원, 주민 모두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 위원장은 교육의 힘을 콩나물시루에 비유했다.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금세 다 빠져버리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자란다. "시골 분들은 폐쇄적인 면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끼리는 형님, 동생 하지만,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은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귀농해서 정착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칠갑산권역 주민들은 개방적이다.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한 변화다.

칠갑산권역은 도농교류센터, 장류가공시설, 구기자체험관, 웰빙체험농원 등을 갖추고 매년 얼음축제를 개최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상)장승공원, (하)도농교류센터

### 지역리더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

두 번째 비결은 사업을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것이다. 청양의 구기자 생산량은 전국의 70%다. 역사도 100년이 넘는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에는 관용농법(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농사짓던 것을 전면 유기농법으로 바꿨다. 그렇게 생산된 구기자를 법인이 1근에 3만원씩 수매한다. 관용농법일 때는 1근에 11,000원~13,000원했다. "칠갑산권역은 사업을 법인 위주로 합니다. 주민들은 간접참여를 하죠. 장 담그고 구기자 와인 만드는 데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법인은 주민들이 키운 콩·배추 등 농산물을 시장가격보다 10% 비싸게 사준다. 그만큼 주민의 소득은 늘어난다.

최 위원장에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성과가 무엇인지 물었다. "소득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류나 구기자 와인 모두 숙성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축제나 체험사업 역시 이제 시작이죠. 소득보다 중요한 성과는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농촌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고령화가 심해 10년쯤 후에는 지금의 어르신들이 거의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지역을 지키는 리더가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통해 농촌은 살아남을 겁니다."

최광석 위원장은 정부 정책이 농촌을 지켜낼 리더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한다. 앞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권역 역시 마찬가지다. 주민들 역량만 높여 놓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한다. "농촌에 사업을 하라고 하면 건물 짓고 편의시설 늘리는 것부터 생각하는데, 사람이 찾아오고 찾아온 사람을 재밌게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 홍보마케팅, 지역역량 강화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면 하드웨어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최광석 위원장은 8월 말 조롱박 축제를 기획 중이다. 아이들이 조롱박도 따고 옥수수도 구워먹는 체험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5년 동안 지역역량을 키워 놓은 덕분에 사업은 순조롭다. "칠갑산권역에는 이런 사업쯤은 거뜬히 추진할 수 있는 리더가 많습니다. 바로 교육의 힘이죠. 하하." 나라경제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